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급 상황일 때 누구보다 발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는 영웅들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도시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고양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을 만나봤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2(성사동)
문의 ☎ 031-931-0119

“ 소방관은
전천후 (全天候) 이다 ”



119 구조대 유재현 소방장

언제 어디서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발휘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소방관은 각자의 주업무, 주특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19구조대’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을 위해 최일선으로 투입되는 팀입니다. 최근 화정동 화재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1층 화재로 인해 연기가 건물에 가득 차올랐고, 4층에 고립된 시민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가장 먼저 유리창을 도끼로 내리쳐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인원을 대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장자부터 구출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에게는 “곧 돌아올 테니 천에 물을 적시고 낮은 자세로 버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갠 유리창에 고가 사다리를 붙여 전원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119구조대는 언제나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합니다. 앞으로도 소방관이라는 소명감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관은
햇살 이다 ”



119 구급대 황황규 소방교

시민의 얼굴에 항상 따사로운 햇살을
비춰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119구급대’로 활동 중입니다.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 맞벌이로 인해 보육교사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응급처치 숙지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보육교사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제안했는데, 그 결과 저희 119구급대가 방문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응급처치가 잘 이뤄진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모든 분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저희 119구급대도 고양특례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방관은
빛과 희망 이다 ”



소방행정과 원종훈 소방장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구조, 구급 업무를 11년 동안 수행하다가 내근직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는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대원들의 구급장비와 물품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소방장비와 물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방장비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죠. 부족한 소방장비를 상시 체크하고, 성능을 점검해 수리해야 합니다. 소방대원의 소방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꼼꼼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소방행정과의 주업무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동료 소방대원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